

# 性靈과科學辯

## 世尊이九十六種外道를調伏하시니 一 往蹟을宛然히復演한一場의大舌戰

朴 漢 永

西潮東漸한今日에 우리朝鮮有識階級은視線이一變하여 西來한物質文明에咸萃하였습나다。咸萃이라하는것은모든咸醉한함이正當하겠지오。더구나佛敎의性靈說을佛敎人이析明한다하면 如何한가를뜻지도 아니하고 掩耳出門하게됨은何故로인한가? 時代의思潮도 일파의關係가잇다할지나 其實은佛敎人自家에서 自敎理에大遠反할뿐아니다 現文化程度에 幾層을墮落한것을말이라하겠습나다。그형으로石人이自述하는것은暫間停筆하고 歐西人柏克森博士의悟道歸佛한最近機緣을概意譯述하려하노니 이것은十餘年前에 倫敦市學術研究大會에서 科學과哲學과의博士等九十餘人이모혀演說할時에 柏克森博士가自經歷을敘述하고 또한互相論辯한것임니다。

頓種人으로 또한哲學博士이였습나다。일즉이「唯物哲學新研究」라하는新書를著述함에 十七版까지刊行하여 歐米一時를風靡한學者로서 印度에東遊한數年餘에 二學이忽變하여 換骨奪胎에至하였다한다。其初에는印度人古今의典籍을閱覽하고其次에는婆羅門古敎의四吠陀典과 數論과 禪察外勝論과 順世와 吠檀陀等諸哲學派의書를盡覽하고 마침내佛敎法藏을進探하고자於是乎 從來唯物論에建立한基本思想을自破하고 다시금安身立命할地點을別求하려하여 세로이今古西東의宗敎와哲學과의思想源을採取揚摧하여 精審細擇한結果에佛敎三寶가安固한歸依地를定하였습나다。究竟은錫蘭島仰光大金佛塔前에서 比丘가되니 時年이四十一이였습나다。因하여全印度山川을遊歷罷하고 西曆一九一一

年에至하여 故國에回錫하는即時에 倫敦市學術研究會講演席에 參與되었습나다。

한山林空曠한곳에서衣三蔽形치못하며 食으로充腹치 못한 刻苦修行하는仙人을보았다

그會의發起人인 西賽波脫博士와薩蒂爾博士와溫特式利文博士와約翰默德博士와演留生博士는모다柏克森博士로되부러 學術道誼로 切磋하는莫逆한故人이라數年을積阻한餘에 豁然히相逢한奇形貌와 語調와가 前日博士와는迥不同함으로 孰說不已는母論이오 論辯이如潮하였습나다。寒喧說은省略하고 二經歷을先述하고 學理問答을次陳하리함니다 柏克森博士曰호대「印度에初遊할時에는우리는文明하고彼는野蠻이며 우리는主人이고彼는奴隸라는舊思想이根據하였고 또한彼土人の開物成務하는能力이 事事に見紺한것이 우리智種만不如함으로그들사라蔑視하는생각으로 비록語言文字間에從遊하나 不屑又是不敬하게된마음이 恒存할뿐아니라 더욱吾歐의物質科學의思想이打格不入함으로 心理上頗悶이자못하였더니 그土의書籍을 比較的으로오미研覈하고 漸次로그民性的慈和愷易와沉毅寬宏한것이 吾歐人の不能及이란것을깨달고 由是로嚮慕의情이生하게되어往返交接을자조하였다。또

그의外界를살피던대 精力의恬適한것과神意의閑暢한것이 吾歐學者의날마다 그의心思를外界에만 憧擾하는것으로 比較하기어렵다。其中에一長老가잇는데 數月間을眼目安坐하여 不衣不食하고不起不臥하게는 其徒數千百人이다 그庭下에頂禮膜拜하기를 數月이나或數年만에 그長老의一微笑와一舒目을得遇하여 悟道한者! 대개 累累하였다한다 余一深奇히너겨裏糲從事하기를 一個月이나經過하였노라。於是乎 이제로부러 나의胸次에凝結하였든 歐洲의粗濁又是驕傲한習氣가漸漸 不知不覺한中에서消化되었다。 또한遊歷하다가 靈鷲山김흔곳에서 老耆를맞나 서도談論이穩熟한後에 그老耆가 謂余하여曰「너의歐洲學者는 腹險量窄함으로往來이그學術을잡추어 印人에게不傳하니 其意는將次로 印人の靈思智能을開闢하여우리印人種을撲滅하려하는것이나 자못不知함은우리印人の靈智寶藏이 歐洲人學術思想보당百千倍已上의超越한것이다 汝英人이所知者로써 우리印人の게傳授하여

니 함으로 우리印人也 더욱 그寶藏을 갖추어 汝에 재傳授치 아니하려 하노라。 우리印人은 스스로取하여 도不竭하고用하여도無盡한靈府가自有하거늘 汝英人이其智를閉塞하고其類를欲滅하려 함은 다夢夢想에不過하니라。余一今日에捕汝하고 常人이能到치 못하는一處에遊覽하여 汝로하야곰 한뼌眼界를廓然케할지니 汝其樂否야? 余一傾諾하고드리어서山中最高深處를차저 岾危崖削壁의前에得到하였다

그老者一崖石을靠으로三殿한대 崖石이剴然開豁하며 一大門을成하였다。其內를窺見한즉 黑洞洞하기漆夜와相似하더라。老者一携余同入할적에나는 일의好奇心의所醉가되야 이에冒險하고나아갔다。數武地가 못되어忽然 光明과清涼이余의肺脈에沁侵하야 從容에未有한快樂을得하였다。余一바야호로愕然回顧한즉 云々浩然한소리에 崖石門을回視하니 일의重閉한지라 不得已하야 老者를서라 一里許를行한즉 廣博嚴淨한一大宅이現前한다 所有한階梯棟樑과門窓几榻이모다 種種光色의寶石으로所成일다。그形式인즉生平의未親한것이며 雕刻의精妙과輪奐의美善은 要컨대人工의能達할배아니

더라。其內에藏書가甚富호대 瓊寶와金器과가은것 들로裝飾하였는데 그書는天象과地體와를論한者도有하며 識神·靈性이恒存하야變化無常하는것과그精鍊修證하는道理를論한者가有하니 其學의深妙와廣徵한것이 吾歐數百年來에學術成功者호一較하진대 마치 燭火를烈日의下에置함에黯然無色한것과一般이엇다。尤奇한것은此中 光明이何所從來한것을不知한것이余로하야吾感受의愉快가言喻키難케하는가를良久하였다。

老者一余의所念을已知하고가되되「此中에淨土光明이또한余에게出할이라 余一與汝로夙世부터 師尊緣熟을因하야 導汝來此하기는 汝의信智를啓發하리한것이니 汝今可行할지어다。」드되어借余及門하니 門이自開하거늘 이에將出할새 余一바야호로老者에게會銜을敬詢하였다。老者는曰 汝一能히 佛光大金佛塔前에 自誓出家하고 沙門의行을行하야 釋尊의弟子가된後에는 我一何人인줄을自然能知할 것이며 다시相見期가有하리라。言已코後爾不見하였다。余一於是에 恍然히此老者는佛敎徒인줄을始悟하였고또한歐洲에物質文明이極致한곳하나 印度

의神靈不測한智府에比하면 亦즉土苴로구나思惟하였다。

余一印度에旅居한지일의三載엇다。至是하야靈山老者의付囑을從하야 드되어佛光大金佛塔에往赴하야 繞行禮拜한後에 塔前에長跪自唱호대 我柏克森은今日로부러 佛陀에안歸依하고 永永다시天神鬼物로써歸依處를상사아니하겠습나다。我柏克森은今日로부러 佛法에안歸依하고 永永다시異學과外道와로써 歸依處를상사아니하겠습나다。我柏克森은今日로부러 佛僧에안歸依하고 永永다시惡友와邪黨과로써 歸依處를상사아니하겠습나다。또自誓하되 我柏克森은今日로부러 形壽가盡하도록 不殺生하며 不偷盜하며 不淫欲하며 不妄語하며 形壽가盡하도록日一食하고長坐不臥하고 財寶을不蓄하고 日常行乞食하리라하였다。於是에靈山老者에게遙拜爲師하고 鬚髮을淨除하고 佛僧衣鉢을持하고 日中 村市에乞食하고 長時 山林에宴坐하야 因果를信念하며 戒行을護持하야 三十七種의覺分法을勤修하였다。

諸博士여余一일의第一、預隨道果를證得함은禪定

中에吾師에게印證을蒙하였고 또 記莛을授호대精修不懈하면 不久에阿羅漢果를當證하리라한다吾今에憫念한것은、吾歐의人은事物變化의末에만 智識이桎梏되어 內鏡의明이업는것이다。故土에重履하기는 智慧仁勇의士로되부러 無上眞正의道에遊履이라。此即 余의東遊經過한程途이며 又한東遊所獲의至道이며니所以英倫에回錫한本意로라 今余는일의出家하야 佛敎徒가되엇스즉 맛답히博士로見稱치말지니 諸先生은稱余하기를 柏克森慈獨라 할이可하나라。」

經過即悟道機緣은總叙하였고 問答論辯은이다음繼述하겠습나다。

「山雨欲來風滿樓」는 當時에모든博士의心理上動搖하는景况이엇습나다。柏克森言下에 敢動傾信하는者도有하고 懷疑沈思하는者도有하고 又한佛然不悅하야 辯難을欲逞하라는者도만함습나다。

薩滿博士가發言하야曰「柏克森慈獨여 汝의所言은아즉도靈한것가르니 이제汝의近日 修證의眞理를持하야能히至簡至要의語로써 宣示하겠나보

「柏克森이曰」善哉라 汝問이甚佳하니 余一맛 吾意로는 他世界가 있다하니 汝가天仙神鬼가 업스며 人死에轉生의事가 업술지니 汝가罪福苦樂의 報가 있스리오 是故로汝의所言한吾人이永存한性命은決코信치 못하겠노라」柏克森은曰「汝는天文學을治한다하니 汝意에는云何호? 太空에 달린 日月星辰은 吾人所居의地球인가 吾人所居의地球가 아닌가 汝가이人世가 될가 天界가 될가? 哀는曰「虛空諸星은 吾人所居의地球는 아닌즉 一世界가別有한것인데 汝는天界라하고人世는아니라하노라」柏은曰「由此로도可知하겠다 卽ち他處와 他地와의衆生世界가 있겠고그를汝가 吾人轉生의事가亦有한故로 善惡苦樂의業報는 卽ち不虛한것이라 汝는이汝가 死後斷滅의意見을懷하며 道德福利가虛無라는邪論을持하였는가? 汝가汝가捨捨하여라 此見과此論과는 胸次에稍留치도말치어다」

法學士亨利斯篇은曰「柏克森의對汝一비록 某博士의所問을解答하였지만 그러되他世와轉生罪福의報가必有하다함은 吾는不信하노라」柏은曰「汝는무엇을證據하여 是言을出하나노」亨利曰「吾의

族弟가有하야 幼相和愛하더니 그 病革에當하야 吾一付囑하되모든宗敎家의말을聞한즉謂하되「人類들이 殺害侵略과 姦亂欺誑과의極重惡業을多作한者이면 身壞命終함에 卽ち地獄에墮入한다」하나 吾는不信하노라 卽ち地獄에墮入한來하야所墮處를說明하는것을未見한故一니라 卽ち所墮處를來言하는者一잇스면 吾一卽ち能信하리라 卽ち 其信을決定코지하는故로 將來語汝하노다 卽ち 汝는我的親信한者一호 衆惡業을備作하엿스나 卽ち 宗敎家의말과가를전대死後에地獄中에必墮할者一라 汝는반듯이還來하야 語我使知케하라한 族弟一極口應承하고長逝한지일의三載로되 還來語我함을未見하엿스니 彼는我를不欺할者로서快許하고도不來한者 決定코後世는업스며 卽ち轉生과善惡報와는亦無한者我知하노라」柏은曰「汝는法學士인즉 法律智識이甚有한者라 吾一今에맛당히譬喻로써得解케하리라 有人이他國에遠遊하다가盜賊을作하야 國法에犯함으로 逮捕得實한者一되어 刑事에 繫付한同時에 彼盜가監守者에게柔言호대「暫間만放我하면 還國하야親友를辭別하고再來受刑하겠다」하면 汝意에云何호監守者가放彼還國을肯許할가?」亨利는答云호대「不能하리라」柏이微笑曰「彼는同人類요 現世에俱存한것마는 犯罪人에게오히러 自由放還을不許하곤 況且汝弟는 衆惡을多作함으로 地獄에必入하엿다하면 鬼卒은無慈悲情할것더러 死後生과가異世하거늘 彼가아모리汝問을信報하기爲하야 獄卒에게哀訴하야 人間에放還하기를要求한것을汝가能得할가」

倫理學博士愛葛斯는曰「柏克森의對汝一비록是譬를說하지마는 吾는오히러人死後에業의善惡을隨하야 樂道에轉生하며 苦趣에墮墮한함을未信하노다 我的好友가일즉이 病重垂死할時에 我一懇告하야曰諸宗敎家에서 普謂하되「人이不殺과不盜와不欺와不淫等인 純粹善業을能行하는者一이면 身死하는日에 天界即生을得한다」하니樂善篤行하는者一果然 天界에得生할것가르르면 吾人의爲善의志를能堅할지니汝가其佳치아나하리오 然이나 吾는從來로 人死後에還來하야 所生의天界는何處에在하며 景象이어찌하다能說하는者를未見하엿노라 汝는我的親信하는者一호 行善이完備하고道德이純全하야

스니 宗教說과 如하면 死後에 冥界에 天界에 能生할 地라 汝一果然生天하지든 人世에 必來하여 語我 歷歷判하면 今我도 行善無報의 疑心을 能解하리라 彼友는 死已久로되 今不來하는 故로 我는 猶預不信 하노라.」 柏은曰「咄哉라 汝疑를 當斷하리라. 假使 有人이 冥海에 서서 身首俱溺함으로 二穢汗을 極厭하여 勇斷出離하였다가 其身을 洗浴하고 其髮을 淨除하고 香水를 薰灑한後에 名衣上服으로 嚴飾하고 마츰 賓朋의 讌會에 參赴하여 佳人名士로되부 리 酣興娛樂하는데 其人이 其時에 다시 冥海에 肯入하겠는가?」 愛는曰「不肯하리라」 柏은曰「天界에 生한者도 亦如是하나라. 人間에 汗穢充滿한것이 天界에서 俯瞰한다면 人臭가 潤剛보다 甚한것이 汝의 善友가 天界에 必生일진대 高潔快樂한것기 能있 지다 시人間의 糞海에 入來하리오 汝는 於此에 致疑치 말고 汝의 行善을 愈堅히하면 天樂을 必獲하리라」

化學博士 羅斯哈德은曰「我는 人死後에 그 德業을 隨하여 諸趣에 轉生하는 事를 不信하노라. 實在에 識神性靈이 無한故니라. 我一聞하니 一博士가 人의 識神性靈을 驗得코지하는 故로 學術上 研究의 請求로 法庭에 向하여 一死刑已定한 人身을 求하여 化驗器內에 縛著牢封하여 아모 必導 光氣를 漏脫치 못하게 하 고 僕役을 親督하여 用火烹煮하면서 二識神性靈이 從何化出하는 事를 注看하여도 二性靈의 去來處를 不見하겟고 또한 化驗器를 發看하여도 性靈의 存在를 不見하얏다하니 以此로 吾는 後世가 必無한을 斷認하노라.」 柏은曰「我今에 問汝하리니 汝는 實答할지어 다. 汝一今晨에 汝家高樓에서 睡夢中에 出遊하여 巴黎의 香巷과 園林과 曾見치 아니하였나?」 羅는 愕然하여曰「吾一實로 夢을 作하얏스나 엇지 人에게 도 與言치 아니하였노라.」 柏은曰「汝의 夢時를 當하여 汝의 家眷과 僕從과는 다 起身하여거니 汝의 精靈出入을 能見한者一잇슬소나」 羅는 答曰「能見者一無하니 다.」 柏은曰「汝今生存하여서 識神出入을 오히려 不見하곤 하물며 死者일췌보나 是故로 汝輩는 決코 物質化驗法으로 汝의 物質肉眼으로 非物質의 識神을 能見하리라 하지말지어다.」 羅는曰「汝는 다만 消極의 說로써 他人의 理論을 遮撥하여 汝義를 成立하얏다 하지말지어다. 汝는 應當 積極證明으로 人의 識神이 如何了了하야 明見한다하면 吾一이 에 能信하리

다」 柏은曰「善哉時問이여 余當告汝하리라. 從佛出家한 諸比丘들이 晝夜로 精勤不怠하여 其의 散動과 昏睡와를 損除하고 오로지 覺分法을 修行한 結果定慧力으로 天眼을 得하였다. 天眼力으로 모든 衆生의 死此生彼를 觀見하는바에 其의 善惡業行을 悉히 鬼畜人天의 差別報를 皆悉知見하나라. 汝는 肉眼의 不見으로 識神이 便無하나라고 汝는 天眼이 無한것은 毋論하거니와 다시 試思하라 凡識神이 必無하다하면 余一엇지 汝의 晨間所夢을 能知할가」 이 에 羅斯哈德이 不覺中에 首肯하기를 무어던하였다.

「若遊峻壑削壁·而谷風溼雨四至」라하는 情況이 只今 諸博士의 譚屑이 四飛한中에 一柏克森森劔가 閉坐四顧하면서 不慌不忙한 語調로 酬對하는 것입니다 且 看下回하오면

解剖學博士 韋爾康은曰「我亦嘗聞하니 性屬好學하는 博士가 學術上 研究의 請求로써 一個 死刑判決한 人을 得하여 解剖法을 行하여 모든 助手로되부러 二皮를 生剝하며 其體를 支解하며 二肉을 樹하여 割하며 二筋骨을 截하며 骸骨出髓하지 識神의 所在를 要求하얏지마는 마츰내 所獲이 無하얏섯나니 余는 人死後에 靈性의 存在함을 不信하노라」 柏克森曰「余一曾言호대 이 識性이란것은 世俗現事中에 可見일것은 不是하얏거늘 汝는 오히려 執迷不悟하는가 今當爲 汝하여 有趣한 古事를 引喻하리라. 在昔亞東曠野地에 一拜火教徒가 有하여 常時燃火하여 奉事無間하더니 一日은 林間에서 一孤兒를 拾得收養한바 甚히 愚蠢한지라 火教徒가 人間에 出遊할새 小兒에 交付屬하되 「我의 도라 술동안에 汝一此火를 善護하여 滅盡케 말지어다 凡일췌지거든 鑽으로 鑽木取火하여 火薪이 相續케 하라」 하고 나야 後에 小兒가 遊戲를 貪하다가 謹火를 失하여 火滅한지라 小兒 懊惱曰「今當奈何오」 하고 吹灰하여도 火를 不得하고 드되여 執斧劈薪하여도 火를 不得하고 드되여 碎薪을 曰中에 置하여 百搗千春하여도 마츰내 火氣를 不見하겟는지라 그리자 마츰 火教徒一還來하여曰「汝는 엇지 守火치 아니하고 曰中에 薪만 春搗하느냐」 小兒一泣曰「我一遊戲하다가 火滅하얏습나다 吾見하니 火기 薪木에서 出하기때문에 斧로 破薪하되 見火키 不能하여 이제 碎薪을 置曰搗春하노이다」 言已코 搖頭大哭하거늘 이에 火教徒一溫諭하여曰「汝且

勿契하고 我的取火를觀하라」하고 又 鑽으로서 鑽木得火하야曰「求火코져할진대 法當如是하니니 鑽木을破碎하여서 是火를不得하니라」하니라 汝도亦然하다 死人을解剖하야 靈識의所在을查지을 處지可得할가 然이나 從佛出家한比丘가 依法勤修하야 聖果를證하고서 淨天眼으로能히 自身과 他身과 乃至諸趣有情과 心神이 隨業受報하는相을均見할지라 汝와如히妄求無効하면 遂謂하되人死에靈性이無有한故로 後世轉生의業報가 없다하는 것은不可하니라」

神學博士 額克費勒은曰「烹化와 剖解와는 다만物質의身만 烹化하며 剖解하는것이라 苟히靈魂을徵求치 못할것이냐 그리나我聞한즉 어찌한博士가 此神學研究의請求로써 一個死刑已定한人을得하야 即時秤으로써 重量을달아보고 其人이 죽은後에다 時重量을달아본즉 皮肉은絲毫도增減이 없진마는 不意에生時보담加重하더라 人身中에 果然神靈이存在할진대 이제試驗한結果 人身死時의重量이 生時보담反重한故로 實뜻이靈性이無有한것이오 그를써라 人死한後에 隨業轉生은 必無한줄知하노

다」柏克森은曰「汝는人死에生時보담重한故를稍疑하야 人死에心識續存이決無한을斷言하지마는 汝는일즉이 人의銅鐵알구는것을不見하였는가 冷鐵과熱鐵과가 輕重이稍異한것은何故인가?」額은曰「熱鐵은熱力과光力과를因하야 冷鐵보담輕한것이 아닌가?」柏이曰「然히다 取譬相成하면 得解不遠하리라 人의生時는 人身이生命의生命精神과 心臟力이有한故로稍輕하고 死後에는그것이身에서난故로重하니 由此로人의魂神이 身即肉體를써나 獨存할을可知하겠고그를써라 맛당히그것이 隨業流轉하야 諸趣에受生함을證明하리라」고한즉神學博士는 鼓掌稱賞하고 欣然心服하더라

生物學博士 米克思는曰「人若死後에轉生事가있서 轉生爲人한다하면 二前生에 何人이 되었을을知하겠고 且人이轉生後에도 前生事를明了하면 造惡者가苦趣를 不免할을乃知하야서 善業을勤修하야 樂果를期成함이必要하지마는 否則則轉生事가있지 않지라도 彼의受苦受樂이 他人과가라 無涉한지라되었지만뜻이務善除惡할가 我는어찌한人이나前生事를確知한者를未見한故로 柏克森의言을未

信하노라」柏은曰「人이轉生한後에 發業과潤生의 無明에가障蔽한바되었습으로 그의前際를述하엿나니라 然이나 從佛出家한 모은比丘는 道品을勤修하야 宿命通을得하면能히前生 乃至百千萬生을自知하며 또한他人의前生 乃至百千萬生을明知하니 不然하다하면 吾師(靈山老若)가되었지 余의前生을能知하며 余今에되었지吾師가 即過去의迦葉波인줄能知하리오 此性靈을修煉하면了知가必多함이佛徒學이니라 人腹中에食物이 如何히消化됨을人이또한自知自見치못하나 然이나 天眼이나역시光鏡을쓰는者는 天能히照見하는것이오 不知한人이라도 一人을另成하야 餓飽의受가업는것은아니라 是故로轉生에前世事를不知한다고遂謂하되 他人과同하야 비록苦樂의報가有할지라도 我에게無涉이라고말지어다 汝는맛당히 未知를從하야依法求知할것이오 決코汝는인의未知로써 永存性靈을스사로埋沒하는것은不可하니라」

老博士 約翰歐德은曰「柏克森의言은汝의所言을觀察한즉 耶蘇敎人言에人의靈魂이不滅하야 或者는天國에永生하며 或者는地獄에永墮하며 或者

天壤人間에遊滯하였다가 主에가末日審判을 受한다함과略同하거늘 汝는何故로 其說을奇異하하야 佛敎의獨至타하는가?」柏은曰「老博士의所詰이甚善하니余는맛당히 其義를分別하리라 耶敎에서는 靈魂을言하앗스나 靈魂의從生轉生은不言하앗고 人의靈魂과肉體와가 모다上帝가造成하앗다한즉 肉體의壞할時에 靈魂이應壞할것이냐 되었지 靈魂이天界에永生하리오 만일靈魂이天界에先有하다가 人世에轉生한것이 或은惡行으로地獄에永墮하며 或은善으로天界에永生한다하면 이것은性靈이流轉輪回하는義라 自敎의天界에永生하며 地獄에永墮한다는道理가 自相矛盾되는것이냐라 耶蘇에既言호대 人의心靈이上帝의所造라하면 人의爲善과爲惡과가 또한上帝의賦與로말미암을이다 一均受苦受樂이 上帝負責에應歸하고 人은自由의受報가업슬지며 또 人은上帝의造成을 由하앗스면 上帝는誰의造成을由할가 다시可解가無하리라 佛

法을且依修行하면 本心眞性を親證한後에 聖眼과 聖耳와他心과宿命과神境과如意와의諸神通을發할時에 憂苦愛樂인物質을解脫한精神定慧로 宇宙萬有

